

# 우크라, 대선도 불발... 젤렌스키 임기 연장될 듯

### 국민 85% 연기 찬성 “민주주의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자 대선 연기 결정” 비판도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모든 선거가 울스톱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 않은 채 대선일이 지나갔다고 미 CNN 방송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일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를 치르려면 대선의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리진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가 중단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선일은 선거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일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를 치르려면 대선의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화가 이뤄진 지 오래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을 미루는 것은 위험하며 러시아와 대조적인 민주적 선거 절차를 치르는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을 미루는 것에 찬성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학생인 미콜라 라빙(21)은 CNN에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이 친러시아 대통령을 몰아낸 ‘유로마

이단 혁명’을 가리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유롭다는 사실을 2014년에 이미 증명해냈다”며 “만약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오래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전쟁 중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 연기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키이우 국제 사회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15%만이 지금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시 상황인 지금 경솔하게 선거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면서 대선 연기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이 미뤄진 데에는 전쟁으로 인해 유권자 모두가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난민과 전장에 나선 군인들, 러시아군이 강제 점령한 지역 주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CNN에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 700만명이 국외로 도피했으며 집을 잃은 난민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장에 머무는 군인들 사이에서도 권력 공백을 우려해 대선 연기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 튀르키예 지방선거 집권당 참패...에르도안 리더십 ‘타격’

### 이스탄불 시장 수성 성공 야권 주자 입지 굳혀...차기 정치지형 ‘요동’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5월 대선에서 결선 투표 끝에 재선에 성공, ‘21세기 솔탄’을 꿈꾸며 30년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중대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여당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됨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에르도안의 잠재적 경쟁자인 이스탄불 시장이 수성에 성공, 야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힘에 따라 에르도안으로서 타격이 더 커지며 차기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개표가 96% 이상 진행된 가운데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소속인 에크렘 이마모글루(52) 현 시장이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100만 표 이상이라며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개표 80% 기준, 이마모글루 시장의 득표율은 50.6%로 집권당 정의개발당(AKP) 후보(40.5%)보다 10.1%포인트 앞섰다.

이마모글루 시장은 2028년 튀르키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맞설 최대 라이벌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2019년 지방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집권당 AKP 후보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를 꺾고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야권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당의 이스탄불 시장 자리 탈환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견장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로 인해 여당의 자신감이 꺾였다고 AFP는 전했다.

수도 앙카라 시장 선거에서도 야당의 수성이 확실시된다.

CHP 소속인 만수르 야바스 앙카라 현 시장은 개표가 46.4% 진행된 가운데 58.6%의 득표율로 집권당 정의개발당(AKP) 후보(33.5%)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승리를 선언했다.

아나톨루 통신은 집권당인 AKP가 이스탄불, 앙카라를 포함해 5대 도시에서 모두 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공식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선거가 진행된 81개 지역 중 36곳에서 CHP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득표율로 보면 CHP가 AKP(36%)보다 1%포인트 앞서는 37%를 기록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이래 CHP가 기록한 가장 큰 선거 승리 결과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에르도안이 확산일로에 인플레이션과 집권 이래 차입비용 최고치 기록 와중에 제1야당에 총력패를 당했다”고 총평했고, AP통신은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며 에르도안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튀르키예의 약진하는 야당이 주요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을 세계 때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세네트(의회) 건물 인근에서 개전 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네타냐후 총리 사퇴” 이스라엘 시민들 거리로

### 조기 총선 즉각 실시·인질 협상 합의 등 촉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퇴와 즉각적인 조기 총선 실시, 인질 협상 합의를 촉구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 건물 인근에는 1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여 네타냐후 정부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 퇴진을 촉구했다.

시위대는 하마스 뿌리 뽑지도 못하고 100여명의 인질도 데려오지 못하는 상태로 6개월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는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에 초정통과 우대교도 청년들의 병역 면제를 두둔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도 시민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일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인 아이르 네타냐후가 개전 후 6개월째 귀국하지 않고 미국 마이애미에 머무는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채널12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크네세트 앞 시위대 규모는 지난해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최대로, 지난해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반대 시위를 연상케 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요 도로를 봉쇄한 채 깃발을 손에 들고 “즉각 조기 총선을 치르라”고 소리쳤다.

시위에 참여한 누릿 로빈슨(74) 씨는 로이터 통신에 “이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은 우리를 구명당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노했다.

인질 가족들도 정부 성토 대열에 합세했다. 친척이 인질로 잡혀갔다는 아이나브 모세 씨는 “6개월이 지나고서도 네타냐후가 장애물이라는 것을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네타냐후가 인질 구출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정부 역시 인질 구출 임무에 실패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 중인 조기 총선을 치르면 정부와 인질 협상이 6~8개월간 마비될 것이라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아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씨! 총선은 나라를 마비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이미 마비됐다”며 “전쟁도 하마스도 인질 협상도,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은) 북부지역도 그리고 당신 주도의 정부도 이미 마비됐고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평화는 무기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부활절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31일(현지시간) 부활절을 맞아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근심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청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모든 전쟁포로를 교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 통신과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 부활

절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세계 여러 분쟁의 희생자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들 지역 사람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먼저 2022년부터 3년째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하며,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를 위해’ 모든 포로를 교환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보장되기를 다

시 한번 호소하며 지난해 10월 복잡한 인질들의 지체 없는 석방과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민과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전쟁은 언제나 패배이자 부조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재무장의 논리에 굴복하지 말자”며 “평화는 무기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고 손을 뻗고 마음을 열어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시리아와 레바논, 발칸반도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아이티, 미얀마, 아프리카 지역이 겪는 분쟁과 갈등도 언급하면서 최대한 빨리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형태의 테러 희생자에도 애도를 표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